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 고위관리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행사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교육 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위관리자 외에도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교육 확대 건의를 반영하여 2025년까지 전문인력 1천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특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상담(컨설팅)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보호벽이 되겠지만, 한발이라도 늦으면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관리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개요.
2. 발표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천지은 (044-201-669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담당자	연구원	안수정 (02-2284-1963)

□ 개 요

- (행사명) 2023년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
- (주제) ESG 컴플라이언스 관리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한 기업전략
- (대상) 기업 고위관리자 50여 명
- (일시) 2023.10.13.(금) 13:30~20: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울 중구)

□ 프로그램

시간	주제	세부내용	연사
13:30~13:35 (5m)	개회사		최흥진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35~13:40 (5m)	축사		조흥식 교수 (서울대, 기후환경대사)
13:40~14:20 (40m)	기조연설		김상협 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4:20~14:35 (15m)	장내정비 및 사진촬영		
14:35~15:15 (40m)	ESG 경영 및 기술	Blueprint to Greenprint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기술	Nicola Weir 수석위원 (한국딜로이트그룹)
15:15~15:55 (40m)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및 기업의 강화된 그린 프리미엄	Jean-Pascal Tricoire 회장 (슈나이더 일렉트릭)
15:55~16:35 (40m)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의 미래	김종남 前위원장 (에너지기술연구원)
16:35~16:50 (15m)	휴식		
16:50 ~17:30 (40m)	ESG 규제	ISSB와 ESG공시 규제 및 기업대응	백태영 위원 (ISSB)
17:30~18:10 (40m)		기업 ESG 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	채민우 법무팀장 (스타벅스코리아)
18:10~20:00 (110m)	리셉션 및 공식만찬		

1 기조연설

○ 탄소중립 시대, 녹색성장과 녹색금융(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 탄소 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이 필수적이며 정부 재정으로 '30년까지 90조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는 일본의 1/3 수준이며 민간 부분의 적극적 투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기술기반의 녹색경제 전환 해결책 마련 필요
- 기후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First Korea를 견인하기 위해 Catch-up State에서 Trend-Setting State로 선진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구축과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필요

2 ESG 기술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기술(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 기후 기술은 급 성장하고 있는 투자 기회로 탄소 감축을 위해 연간 약 5.6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지만 실질적 데이터 부족으로 민간 투자에 어려움이 많음
- 탄소중립 달성에 적합한 기술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기술발굴 추진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필요

* 딜로이트 그린스페이스 테크 소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일렉트릭 회장)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잘 설계된 데이터의 활용이 기술혁신과 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당사의 비즈니스, 문화, Value Chain, 거버넌스 등 모든 단계에 내재된 ESG 요소를 디지털화 하고 있고 수요의 90%를 탈탄소화하는 비즈니스 전환을 달성

○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의 미래(김종남 에너지기술연구원 前원장)

- 탄소중립 실현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2050년까지 무탄소 문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
- 간헐적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 통합 인프라 구축, 암모니아 에너지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필요성 역설

■ 3 ESG 규제

○ ISSB와 ESG공시 규제 및 기업대응(백태영 ISSB 위원)

- IFRS 재단의 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S1 일반 요구사항, S2 기후 공시 관련 기준으로 확정('23.6월)하였으며 '24.1.1.부터 적용 예정
- 기업 경영정보 공시 시점을 3월로 앞당기는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며, SASB·ESRS 등 그 외 지속가능성 이슈 공시도 함께 대비 필요
- 사내교육 등을 통해 ESG 경영·공시의 심각성과 긴박성의 인식을 공감하고, 경영전략 관점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 투입 필요

○ 국내기업의 ESG 전략 제언(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

- 사회적 책임이라는 자율적 규범이 법규화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한 ESG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스타벅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다양한 정책평가에 활용하여 업무중복 해소, 내부저항 최소화 및 종합적 리스크 예방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성과 실현 달성

* 기업이 직면해있는 법 규제적 리스크 관리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업존속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식별, 관리하고 자체적인 자율규범 내재화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추구